

표류하는 양록업계를 진단한다

축산신보사 기자 김 한 응

최근들어 양록업계내에서는 양록업의 미래에 대한 푸념조의 한탄과 함께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슴의 수입개방이후 미국산 엘크 1백 70두가 처음으로 수입되는 등 양록업영위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 양록인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단합 대처해 나가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도래되고 있는데 대해서 양록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국내 양록산업은 어떻게 전개되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구가해왔던 양록업계의 빠른 발전을 최근들어 발생하고 있는 각종악재를 극복하고 지속할 수 있을까.

국내 양록인들을 비롯 양록산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인들이다.

그러나 이에대한 양록인사들의 반응은 명쾌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 처해있는 양록업계의 상황이 각종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내기에는 너무나 허약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한 갈등만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사슴이 사람의 손에 의해 사육되

기 시작한 이래 몇차례의 사슴파동이 있기는 했으나 순탄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사슴사육이 특정인사들의 보신용 관상용 사육작목이라는 인식을 떨쳐버리고 UR등 농축산물의 개방화 자유화에 따른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인식, 사슴입식이 활기를 띄면서 양록업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또한 이에 부응 지도층 양록인사들은 양록산업의 위상정립과 축산업으로서의 기반조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온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아래에서도 양록정책 및 양록인들의 이익보호를 충족시키기에 많은 허점이 노출되었다.

그에가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던 영세규모의 양록인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문제 양록산물에 대한 특소세 부과폐지등을 비롯, 사슴피 세균오염파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실패, 사슴수입개방시기의 연장실패등이 그것들이다.

이는 곧 사슴가격의 하락을 비롯, 녹혈, 녹용의 판매부진, 사슴유통의 마비등으로 연결지어졌고 다시 양록인들의 소득감소와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졌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양록업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할 양록협회와 양록조합은 사슴수입문제로 시작된 수입창구일

원화 및 사슴수입에 대한 찬반시비로 적절한 대응책을 유도해내지 못한채 갈등이 지속되는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양록업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할 두단체간의 불협화음은 실질적인 지도력의 상실과 같은 현상을 초래, 전국 각지역의 유사단체 설립을 촉진시키는 빌미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들 유사단체들은 각종 보도매체를 통해 여론주도와 함께 일부 단체의 경우 사슴시세발표등을 통한 사슴유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지역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를 갖고있지 않은 것은 물론 아니다.

중앙의 양록대변단체가 지역 양록인들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대행해주지 못하는 만큼 지방의 양록인 스스로가 단합 이익보호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중앙에서 발표하는 사슴시세가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사슴가격과 차이가 있어 우리가 거래기준을 설정, 유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행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같은 지역단체 결성의 활성화에 대해 업계내의 상당수 양로인들은 우려의 눈초리와 함께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게끔 협회 및 조합이 철저한 지도력을 갖고 양록인들을 규합하지 못한 만큼의 댓가를 받고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중구난방으로 사분오열된 양록업계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협회의 위상정립과 함께 조합역시 조합원들의 실질적

인 이익을 보존해주는 것은 물론 현 양록업계에 대한 현실정을 직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협회, 조합의 영역권 밖에 있는 소외양록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보전 및 사업성을 제시,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특히 조직구성원의 약화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협회의 경우 양록업계를 대표하는 주관단체로서의 명성에 맞게 현 체제를 과감하게 개편, 양록업계의 발전을 위한 체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개인의 이익보호를 위한 처신보다는 업계 발전에 희생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회장단 및 임원진을 구성, 난제타결에 앞장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 전반에서 강력히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업계의 방향제시는 전체 양록인들의 손에 의해서 제시되어야 한다.

양록업이 과거의 사육형태를 떠나 본격적인 축산업의 일원으로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현재는 과거와 같은 주먹구구식의 발상으로는 더이상 헤쳐나갈 수 없다.

양록업에 대한 위상정립등을 통해 사슴사육업의 위치가 과거와 달라진 만큼 반대급부의 제약요건은 다발하게 되어있다.

홀어져서는 자신의 권익을 찾을 수 없다. 하나로 단결된 힘만이 자신의 업을 보호하고 나아가서는 전체 양록업이 발전해나가는 길임을 자각할때다. ☆

끝